



국제리뷰

- 제 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이슈 논의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여성이슈 논의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제 5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는 2014년 3월 10일(월) - 3월 21일(금)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기에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에 있어 여성과 여아 관련 도전 과제 및 성과”를 우선 의제(priority theme)로, “생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를 긴급사안(emerging issue)으로, “여성 and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 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 여성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노동에의 동등한 접근 증진을 포함하여”를 검토 의제(review theme)로 다루었다. 우선의제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한 배경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기한이 2015년에 종료되고, 새로운 개발목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여아와 관련된 성과를 점검하고 이행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토 의제로 선정된 “여성 and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 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는 제 55차 회기 때 채택되었던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매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해왔으며, 금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 주제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팀에서 3월 17일(월) - 21일(금)까지 부분적으로 참가하였다.

우선의제에 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행 상황

우선의제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에 있어 여성과 여아 관련 도전 과제 및 성과”에 대해 각국 정부 대표들은 자국의 여성, 여아관련 MDG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본원이 수행하고 있는 아태지역 양성평등 인프라구축사업 대상국과 그 외 주요 국가들의 여성, 여아 MDG 이행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경우 양성평등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실행 중에 있다. 최근 실행 중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기존 4개월에서 6개월) 및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이 있으며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로는 의회 내 여성 비율을 24% 달성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은 남녀 동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73%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편초등교육을 달성한 상황이다.

미얀마에서는 2011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MDG달성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3년 10월에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 for Advancement of Women)이 수립되었으며, “2013 - 2022 여성발전 10개년 계획” 또한 실행에 착수하였다. 현재 성폭력근절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작업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 중에 있다. 2012년 이후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예산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여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여성과 여아 관련 M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 달성 미흡분야로 여성고용률과 모성사망률을 지적하면서 MDGs 달성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여성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development of women)이 필요하며 이를 Post-2015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여성과 여아관련 이슈를 독립 목표(stand-alone goal)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MDGs 달성은 남반구 국가들(Global South)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며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확보와 기술원조가 필수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는 Post-2015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주체 사상에 입각하여 1946년 양성평등법을 수립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양성평등 실행을 위해 국내 조율 기구 설립하였고,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을 소개하였다.(특기할만한 사안으로는 북한과 중국은 자국의 MDG 이행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회의장 분위기가 잠시 불편해지기도 하였다)

독일의 발언을 통해서서는 서구 및 유럽 국가들의 이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에도 남녀임금격차 등의 젠더기반 차별이 존재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정책으로는 1)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 2)기업의 이사(board)에 여성할당제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여성의 인권보장을 기조로 하여 분쟁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적극주도(active agents)와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도전을 해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DG 목표달성을 위해 UN Women의 적극 주도, 체계적인 성주류화, 적절한 목표 및 지표 설정,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공고화, 자원 구축 등을 촉구하였다.

검토의제에 관한 패널토의 내용

이번 회기 때 검토 의제로 채택된 “여성과 여아의 교육, 훈련, 과학, 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여성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노동에의 동등한 접근 증진을 포함하여”에서도 흥미로운 패널 토론이 이어 졌다.

FLASCO(Latin American School of Social Sciences)의 젠더·사회·정책 국장인 Gloria Bonder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에 있어서의 젠더적 관점”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여학생들의 STEM 교육 제고를 위해 젠더, 교육, 연구, 정책, 실행 등의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진행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여학생들의 STEM 분야 진출은 여성의 기술에의 접근확대 차원을 넘어 STEM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실질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구조의 변화란 구조 내에 숨겨져 있는 남녀격차, 조직 운영자, 조직 내 여성의 위치, 조직 전략, 조직 문화 등 차별의 핵심이 되는 요인들의 변화를 가리킴)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STEM 참여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젠더분석, 일가정양립, 인간개발 및 지속 가능 개발, 현재 및 과거 여성의 STEM에의 기여도, 인간중심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STEM 등의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인 Njideka Harry 기술을 위한 청소년 재단(Youth for Technology Foundation, YTF) 대표는 “여학생의 STEM 교육을 위한 접촉포인트(focal point)로서의 지역사회”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여학생들의 STEM교육 장려를 위해서 1)기술에의 접근(access to technology), 2)일상에의 연관성(relevance to their lives), 3)여성권한강화, 4)고정관념(stereotype) 타파라는 네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rry에 의하면 STEM 교육에 있어서 고정관념이란 STEM의 남성성 (masculinity of STEM) 및 STEM은 여성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여학생들의 STEM 분야 진출을 권장하지 않는 사회적 태도(societal attitude), 여성 멘토 및 역할 모델의 부재, 여학생의 STEM 전공을 장려하지 않는 학교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여학생의 STEM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STEM 전공 여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 교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STEM 관련 공개 자료시스템(open data system) 구축을 촉구하였고, STEM 장려를 위해 정부가 조기 개입할 것과 기업이 양성평등 고용정책 등을 활발히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로는 Leigh Ann DeLyser, 뉴욕시 컴퓨터교육 컨설턴트가 소프트웨어 공학 학교(Academy for Software Engineering Against a Headwind)에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함께 발표하였다.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DeLyser는 여성의 STEM 분야 참여에는 경제적, 개인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기술의 소비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기업의 이익률을 상승시킨다는 점이 있으며, 개인적 측면으로는 STEM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회적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케 하며 지속적인 학업(석사, 박사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인 커리어 진입 및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동등한 점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결여로 STEM 선택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조기 접근 기회 제공, 특별 프로그램 도입, 남녀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대학 과학사 교수로 재직 중인 Londa Schiebinger 박사가 “성인지적 혁신(Gendered Innovations): 여성의 필요에 민감한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Schiebinger교수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성인지적(Gender Based) 분석은 1)“숫자를 변화시키고(fix the numbers of women, 여성의 참여율 증가)” 2)조직을 변화시키고(fix the institution, 연구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 3)지식을 변화시키는(fix the knowledge, 성인지적인 연구를 도입함으로써 성인지적 혁신 추구)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어서 성인지적 연구의 혁신을 위해서 정부예산 연구 발주 시 지원자의 연구에 젠더분석이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젠더분석을 도입한 논문에 학술지 게재 혜택을 주고, 이공계 커리큘럼에 젠더분석 통합시키는 등의 과감한 정책 도입을 촉구하였다.

국가별 토의에서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도 발언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여성친화적인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피력하면서 2014년 2월부터 유관부서들은 1)임신출산시기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2)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3)다양한 고용형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여성 생애주기별 고용지원을 위한 합동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에의 접근 보장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및 일가정양립과 모성보호에 관한 대중인식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의 경우 2014년 2월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중 홍보에 나섰으며 여기에는 기업체와 시민사회도 적극 참여 중이다.

맺음말

본 제58차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각국 정부는 MDG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다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분야별 이슈 또한 대두되었는데, 여기에는 분쟁 및 자연재해에서의 여성의 권한강화, MDG 담론에서의 LGBT 포함, 여성의 재생산권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과 여아의 STEM 교육 분야 진출에 관련하여서도 각국 정부들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패널 토의에서는 사례발표와 함께 현재 컴퓨터 전공의 여학생이 참여하여 개인의 소감을 발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Londa Schiebinger 스탠포드대 과학사 교수의 여성의 STEM 분야 진출을 위한 구조적 및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본 회의는 내용적 측면 이외에도 본원의 국제 네트워킹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난 해 본원이 주관한 한아세안 국제컨퍼런스 참가자인 필리핀 미리암 대학교(Miriam College) 여성젠더연구소

(Women and Gender Institute) 소장이 필리핀 정부대표단장으로 본 회의에 참석한 바, 그간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아세안 사업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해 본원 주관 SSAGE(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워크숍 참가자인 미얀마사회복지부 젠더실 부국장이 미얀마 정부 대표단 일원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연한 조우를 통해 그간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아태지역 양성 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진행 상황과 올해의 미얀마 관련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논의하는 뜻밖의 수확도 거둘 수 있는 기회였다.